

2017년 5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 노래, 왜 부르는가
愛の歌、何故歌うのか

카뮈가 그랬던가.
カミュがそうだったか

“삶이란 캄캄한 어둠 속에서
“人生とは、暗闇の中で

끝없이 사랑이라는 성냥불을 켜대는 것”이라고.
終わりなき愛という、マッチの火をつけること”だと

그렇다. 삶이 있는 곳이라면 사랑도 있다.
そうだ。人生があるところなら、愛もある

우리는 살면서 사랑을 많이 노래한다.
我々は生きながら、愛をたくさん歌う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 노래에
だから、人々は愛の歌に

관심이 많다.
関心が多い

- 김용석의 《김광석 우리 삶의 노래》중에서 -
- キム・ヨンソクの〈キム・グワンソク我々の人生の歌〉より -

* 캄캄하니까 성냥불을 켵니다.
* 真っ暗だから、マッチの人付けます

사랑하니까 사랑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愛するから、愛の歌を歌います

더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さらに愛してほしくて、愛の歌を歌います

사랑을 잃은 아픔 때문에 사랑 노래를 부릅니다.
愛をなくす痛みから、愛の歌を歌います

춥고 외롭고 어둡고 사방이 캄캄할 때마다
寒く、疲れて、暗いが、真っ暗になるたびに

당신과 나, 사랑 노래를 함께 부르며
あなたと私、愛の歌をともに歌いながら

길을 찾습니다.
道を探します

카ミュ (Camus, Albert, 카뮈)
성냥불
[명사] マッチの火.
춥다
[형용사] 寒い.

20170508.txt

외롭다

[형용사] 頼る所[身寄り]がなくて心細い; 寂しい; わ...

어둡다

[형용사]

暗い.

(光・色などが) 明るくない.

(零囲氣・表情・性格などが) 沈うつでは...

2017년 5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

갈림길에서
分かれ道で

갈림길에서 당신을 만났지요.
分かれ道であなたに会いましたね

하나의 길이 또 하나의 길과 만나는 곳.
一つの道が、また一つの道にあうところ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지요.
名前は聞かなかったです。そういう必要がなかったです

나에겐 대답의 목소리가 필요해요. 진실이신
私には、答えの声が必要です。真実である

그분이 필요해요. 제대로 보게 해줄 새 눈이
その方が必要です。ちゃんと見せてくれる新しい目が

필요해요. 이 갈림길에서 바른 길로
必要です。この分かれ道で、正しい道に

잡어들 수 있도록 나의 부서진
捕ま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私の壊れた

영혼과 함께해 주세요.
魂と共にしてください

보이지 않은 진실의 길로.
見えない真実の道に

- 윌리엄 폴 영의 《갈림길》 중에서 -
- ウィリアム・P・ヤングの〈分かれ道〉より -

* 삶은 우리를
* 人生は我々を

늘 갈림길에 서게 합니다.
ずっと分かれ道に立たせます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東側に行くか、西側に行くか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この人に会うか、あの人に会うか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놓습니다.
一度の選択が人生を、丸ごと変えて配置します

보이지 않은 진실의 길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새 눈,
見えない真実の道を、ちゃんと見ることができる新しい目

바른 대답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새 귀,
正しい答えの声をちゃんと聴くことができる新しい耳

갈림길에서 꼭 만나야 할 영혼의 안내자입니다.

分かれ道で、必ず会わなければならない魂の案内者です

부서지다

[자동사]

(조각나다) 壊れる; 碎ける; めげる[방언]. [작은말]바서지다.

(사개가) 蟻差しがそれる.

(期待や希望などが) 壊れる; 崩れる.

통째

[부사] (主に ‘통째로’ の形で用いられて) 丸ごと; 丸の...

2017년 5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

진정한 리더십
本当のリーダーシップ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
本当のリーダーシップは何か?

리더는 단지 효율적으로 일 처리하는
リーダーはただ、効率的に仕事を処理する

사람이 아니다.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다.
人ではない。リーダーは'正しいこと'をする人だ

리더는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リーダーは目標達成のために、手段と方法を選ばない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人ではなく、ただ正しい価値観によって動く

사람이다. 리더는 자기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人だ。リーダーは自分の長短所を正確にわかって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自分の弱点を克服するために

노력하는 사람이다.
努力する人だ

- 게리 맥킨토시의 《리더십의 그림자》 중에서 -
- ゲイリー・L・マッキントッシュの〈リーダーシップの影〉より -

* 리더는 명암(明暗)의
* リーダーは明暗の

칼 끝 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刃先の上を歩いていく人です。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항상
自分の行く道が、正しい道なのかいつも

날카로운 눈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鋭い目で自分を振り替え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스로 돌아보는
その方法は二つです。一つは自ら振り返る

자기 성찰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통해
自己省察の方法で、もう一つはほかの人を通じ

자신을 비춰보는 방법입니다.
自分を、照らす方法です

(2002년 12월20일자 앙코르 메일)
(2002年12月20日付アンコールメール)

그림자

[명사]

影.

(그늘) 影法師.

(거울 따위에 비친) (鏡や水面に映った物体の)...

비추다

[타동사]

(밝게 하다) 照らす.

(거울 따위에) 映す.

(견주다) 照らす; 鑑みる.

2017년 5월 11일 보낸 편지입니다.

가장 멀고, 가장 빛나는 길
一番遠く、一番光る道

가장 멀고,
一番遠く、

가장 빛나는 길은
一番光る道は

내가 나를 찾아 떠나는 길입니다.
私が私を探して発つ道です

빛과 어둠은 내 마음속의 길에도 있습니다.
光と闇は、私の心の中の道にもあります

내 안의 빛이 어둠에 눌러 가려져 있다가
私の中の光が闇に押されて包まれているが

먼 길을 걷는 순간, 그 어둠을 뚫고 올라와
遠い道を歩く瞬間、その闇を突き抜けて

가장 눈부신 빛으로 나를 비춰줍니다.
一番まぶしい光で私を照らしてくれます

그래서 그 먼 길을 또다시
だから、その遠い道をもう一度

용기내어 떠납니다.
勇気を出して発ちます

- 고도원의 《절대고독》 중에서 -
- コ・ドウオンの〈絶対孤独〉より -

* 나는 누구인가.
* 私は誰か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私は今どこへ行っているのか

내가 나를 잘 모릅니다. 방향을 잃을 때도
私が私をよく和解ません。方向を失うときも

많습니다. 빛과 어둠이 수시로 교차합니다.
多いです。光と闇が時折交差します

빛일 때는 빛을 따라서, 어둠일 때는 그 어둠을
光るときは光によって、暗い時はその闇を

뚫고 나와, '나를 만나는 길'을 찾아 떠나야
突き抜けて、私と'私に会う道'を探して発たなければ

합니다. 매우 먼 길이지만, 사실은
なりません。とても遠い道だが、事實は

가장 빛나는 길입니다.
一番輝く道です

놀리다1

[자동사] ['누르다']의受け身] 押される.

뚫다

[타동사]

(구멍을) (穴を)開ける;突き抜く; 穿つ[아어(雅語)].

通ずる.

(길·막힌 것을) (道·つまりなどを)通す; 開く; 貫通...

올라오다

[자동사]

(높은 데로) (高い所へ)上がって来る; 上[昇]る.

(거슬러서) (流れを)さかのぼって来る; (さか)のぼる.

[타동사] (높은 곳으로) 高い所へ上がって[登って]来る. (⇨내려오)...

비추다

[타동사]

(밝게 하다) 照らす.

(거울 따위에) 映す.

(견주다) 照らす; 鑑みる.

수시로

[부사] 隨時; その折折; いつでも; よりより.

교차 (交叉)

[명사] 交差.

2017년 5월 12일 보낸 편지입니다.

난생 처음 먹어 보는 맛
生まれて初めて食べる味

여행지에서 만난 맛.
旅行地で会った味

만일 여행지로 그 마을을 고르지 않았더라면.
もし、旅行地に、その村を選ばなかったなら

만일 그 가게에 훌쩍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일
もし、その店にひよいと入らなかったなら、もし

숙소 여주인이 그곳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宿所の女主人がそこを教えてくれなかったら

수많은 '만일' 을 생각해 볼수록 신기한 기분이
沢山の'もし'を考えるほど、不思議な気分

든다. 모르는 고향에서 난생 처음 먹어 보는
になる。知らない地方で、生まれた初めて食べる

맛과 만났을 때, 몸을 쪽 앞으로 내밀어
味にあった時、体をずっと前に出して

그 맛과의 거리를 메우고 있는 나
その味との距離を、埋めている私

자신을 깨닫고는 새삼스레
自身を気づいて、今更

스스로의 감각을 다시
自らの感覚を、もう一度

보게 되었다.
見るようになった

- 히라마쓰 요코의 《어른의 맛》 중에서 -
- 平松洋子の〈大人の味〉より -

* 만일과 만일,
* もしともし、

우연과 우연이 겹쳐 필연이 됩니다.
偶然と偶然が重なって、必然になります

어느 지역을 여행하다 우연히 먹게 된 음식맛에
ある地域を旅行して、偶然に食べた食事の味に

매료돼 그 곳을 다시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魅了され、その場所をもう一度探す場合も多いです

우연처럼 만난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면
偶然のようにあった人と、愛するようになれば

그곳은 제2의 고향이 되기도 합니다.
そこを第2の故郷になったりもします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 난생 처음
生まれて初めて食べる味、生まれて初めて

해본 사랑, 우연과도 같은 그
した愛、偶然のような、その

첫 만남에 오묘한 필연이
初めての出会いに、奥深い必然が

숨어 있습니다.
隠れています

生まれて初めて見る物だ 발음 재생 (표제어: 처음)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이다

고장

[명사]

地方; 地元.

ふるさと; 生長地.

本場; 産地.

쭉

[부사]

(연잇다) (何かが) 一列に続いているさま: ずらり; ずっと; ...

動作が一気に滞りなく続くさま: さっと.

(내내) (時間的に) ある動作が続くさま: ずっと; 続(つ...

메우다¹

[타동사] ['메다'] 補填する; 補う; 埋める; うずめ...

겹치다

[자동사] [타동사]

(포개다) (物の上に物を) 重ねる.

(중첩됨) (事が) 重なる; がちあう; ダブる [속어].

오묘하다 (奥妙—)

[형용사] 玄妙だ; 玄奥である; 奥深い.

2017년 5월 13일 보낸 편지입니다.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진경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ジンギョ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내 가슴이 시키는 길
私の心がさせる道

눈앞에 놓인
目の前に置かれた

인생의 수많은 갈림길에서
人生の数多くの分かれ道で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은
一つを選択しなければならない時、大部分の人は

논리적인 판단을 하지만 나는 꽤 즉흥적인 편이다.
論理的判断をするが、私は、かなり即興的な方だ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보다 한없이 깊고 넓으니,
無意識の世界は、意識の世界より限りなく深く広いので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보기 보다는 거침없이
私は計算機をたたくよりは、思いっきり

내 가슴이 시키는 길을 따른다.
私の胸がさせる道に従う

- 김수영의 《멈추지마, 다시 꿈부터 써봐》 중에서 -
- キム・スヨンの〈留まるな。もう一度夢から書いてみて〉より -

* 시간이 갈수록
* 時間が過ぎるほど

제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私が好きなのは何なのか

무엇을 원하는지, 내 감정은 지금 어떤지 잊고
何を望むのか、私の感情は今どうなのかを忘れて

사는 듯 합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生きるようです。そんなある日、私が好きなことを探せ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잘 하는 게 무엇인지,
そう喜べません。ちゃんとするのが何なのか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몰라 뒷걸음질 칠 때,
望むことが何なのかをわからず、後ずさりするとき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내 가슴이
もう一度、勇気を出して私の胸が

시키는 대로 해봐야겠습니다.

させるままに、してみなければなりません。

놓이다

[자동사]

['놓다' の受け身]

置かれる.

載る; かかる.

꽤

[부사]

(어지간히) かなり; よほど; ずいぶん; だいぶ; よっぽど[속어].

(비교적) わり(あい)に; 比較的; やや.

즉흥 (即興)

[명사] 即興.

두드리다

[타동사] たたく; 打つ. [센말] 두드리다.

거침없이

[부사]

差し支えなく; 障りなく; すらすら; すいすい[속어].

はばかることなく; 氣遣うことなく.